



미래 먹거리 의료산업, 신흥시장 중심으로 수출 확대해야

의료산업은 고령화 및 신흥국의 소득 증가에 따라 미래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선진국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우리나라는 국제 경쟁력이 미흡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의료산업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지난 3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 9.0%을 기록하면서 전 품목 증가율(1.0%)을 크게 상회하였고, 향후 신흥국의 의료 수요 확대에 수출 확대가 예상되는 잠재력이 큰 산업이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FTA 활용을 통해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의료산업분야 수출을 본격화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산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수출시 각국의 지식재산권, 임상 시험, 인허가 관련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1 글로벌 의료산업¹⁾에서 한국의 위치

- 전 세계적 의료 서비스 수요 확대에 따라 의료시장은 미래 유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독일, 미국 등의 선진국이 두각을 보이는 반면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낮은 수준
- 의료산업은 ①전 세계적인 인구고령화 추세 ②중국, 인도, 아세안 등 신흥국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 서비스 수요 확대에 힘입어 미래 유망산업으로 부상
- 의료산업의 최대 수출국은 독일, 미국 등 선진국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
 - (의약품) 독일(비중 13.2%), 스위스(11.0%), 벨기에(10.5%) 등 서유럽 선진국이 전 세계 의약품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전 세계 수출 비중이 0.4%를 차지해 25위에 그침
 - (의료기기) 의료기기 최대 수출국은 미국(비중 21.6%)이며, 독일(14.3%), 네덜란드(7.8%) 등 Big 3가 전 세계 의료기기 수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 반면, 한국은 전 세계 수출의 1.2%를 차지해 16위를 기록

1) 의약품(HS 6단위 109개 품목) 및 의료기기(HS 6단위 50개 품목) 등 HS 6단위의 의료산업 159개 품목을 분석 대상으로 함

국가별 의약품 수출 현황(2013년)

순위	국가	금액(억 달러)	비중(%)
1	독일	865	13.2
2	스위스	723	11.0
3	벨기에	691	10.5
4	미국	569	8.7
5	아일랜드	480	7.3
6	프랑스	437	6.7
7	영국	381	5.8
8	네덜란드	291	4.4
9	이탈리아	286	4.4
10	중국	255	3.9
25	한국	29	0.4

국가별 의료기기 수출 현황(2013년)

순위	국가	금액(억 달러)	비중(%)
1	미국	538	21.6
2	독일	355	14.3
3	네덜란드	194	7.8
4	중국	140	5.6
5	벨기에	124	5.0
6	아일랜드	117	4.7
7	스위스	115	4.6
8	프랑스	111	4.5
9	영국	91	3.7
10	일본	88	3.5
16	한국	30	1.2

주 : HS코드 6단위 기준으로 분류. 비중은 전 세계 수출에서 각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 UN Comtrade

- 한국은 2014년 상품수출 세계 7위의 수출 강국이지만 의료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그쳐 의료산업의 수출 경쟁력은 아직 열위를 보임
- 프랑스의 경우 의료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수출의 10%를 육박하고 있고, 의료 강국 독일과 미국 역시 각각 전체 수출의 8.3%, 7.0% 비중을 차지
- 반면 우리나라의 의약품, 의료기기 수출 비중은 각각 0.5%에 불과해 세계 수출 8강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

주요 수출국의 의료산업 수출 비중(2014년)

(단위 : %)



주 : HS코드 6단위 기준. 수출 비중은 세계 수출 8대 강국을 대상으로 2012년-2014년 對세계 전체 수출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산정
 자료 : UN Comtrade

2 한국의 의료산업 수출 동향

- 우리나라의 의료산업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나 지난 3년간 연평균 9.0% 증가하면서 전 품목 수출 증가율(1.0%)을 크게 상회
- 지난 3년간 對EU 상품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2.5%로 하락세를 보인 반면, 의료제품 수출은 연평균 6.5% 증가하며 선전

- 신흥국의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확대로 지난 3년간 對중국 수출은 연평균 20.4%, 對아세안 수출은 연평균 10.3% 증가

한국의 의료산업 수출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전품목		의료산업			의약품			의료기기		
	금액	연평균 증가율	금액	비중	연평균 증가율	금액	비중	연평균 증가율	금액	비중	연평균 증가율
전세계	572,665	1.0	6,541	100.0	9.0	3,402	100.0	11.4	3,139	100.0	6.7
EU	51,658	-2.5	1,145	17.5	6.5	573	16.8	23.1	573	18.2	-3.6
중국	145,288	2.7	925	14.1	20.4	520	15.3	14.8	404	12.9	29.6
아세안	84,577	5.6	853	13.0	10.3	524	15.4	11.0	329	10.5	9.1
일본	32,184	-6.7	720	11.0	3.7	486	14.3	2.9	234	7.5	5.5
미국	70,285	7.7	621	9.5	2.3	147	4.3	4.3	473	15.1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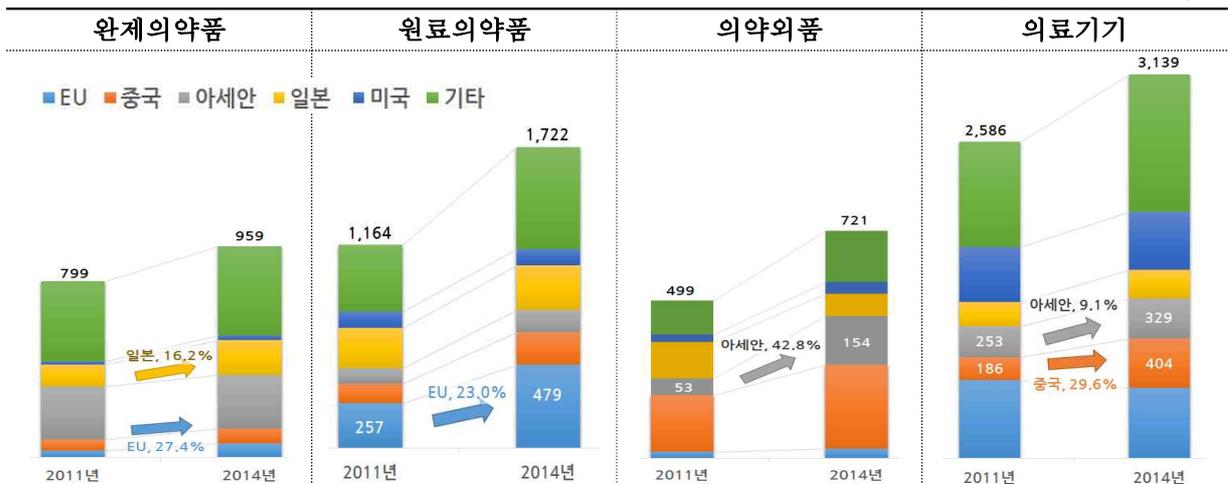
주 : HS 6단위 기준. 금액과 비중은 2014년을 기준으로 하며, 연평균증가율은 2012년~2014년 3년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 완제의약품, 원료의약품은 EU, 일본 등 선진국을 대상으로 수출이 확대되었으며, 의료기기, 의약외품* 수출은 중국, 아세안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급증

* 의약외품 :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쓰는 의약품보다는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물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따로 정한 분류 기준에 의한 약품을 지칭

의료산업 세부 품목군별 수출 금액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



주 : 증가율은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냄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혈액분획물의 조제품(HS 300210-1000) 수출 급증에 힘입어 원료의약품의 對EU 수출은 연평균 23.0% 증가하여 4.8억 달러 기록

* 혈액분획물 조제품(HS 300210-1000) 수출액(억 달러, 전년 동기비 증가율%)
 (대세계) ('13) 0.7, 189.8, ('14) 1.7, 138.8, ('15.1~5) 2.6, 329.9, (대EU) ('13) 0.1, 7,092.6, ('14) 0.7, 501.2, ('15.1~5) 1.9, 367.6

- 살균제(HS 380892), 살충제(HS 380891)를 중심으로 한 의약외품은 중국, 아세안 등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이 급증

- 또한 의료기기 가운데는 측정용·검사용 기기(HS 902780), 초음파 영상진단기(HS 901812) 등이 신흥국 수출을 주도

對EU 품목별 수출 증가기여율
(단위 : 백만 달러, %)

HS	분류	품목명	수출	연평균 증가율	기여율
300210	원료	혈액분획물의 조제품	85.7	200.1	41.7
293499	원료	핵산과 이들의 염	67.3	40.2	21.6
300490	완제	기타 완제 의약품	49.9	59.5	19.0
293399	원료	기타 질소헤테로고리화합물	45.3	48.1	15.8
901819	의료기기	기타 진단용 의료용 기기	57.1	22.0	13.0
294190	원료	기타 항생물질	63.6	14.4	10.7
901890	의료기기	그 밖의 의료용 기기	72.8	11.5	10.2
902214	의료기기	기타 방사선 기기	26.8	48.7	9.4
902129	의료기기	기타 정형외과용 기기	30.5	18.1	6.0

對일본 품목별 수출 증가기여율
(단위 : 백만 달러, %)

HS	분류	품목명	수출	연평균 증가율	기여율
300490	완제	기타 완제 의약품	77.1	39.4	64.7
300210	원료	혈액분획물의 조제품	17.6	952.4	23.3
300420	완제	항생물질을 포함한 소매의약품	43.6	13.8	18.7
901890	의료기기	그 밖의 의료용 기기	23.9	21.4	14.0
900130	의료기기	콘택트 렌즈	34.9	12.3	13.7
901819	의료기기	기타 진단용 의료용 기기	20.6	20.5	11.7
293499	원료	기타 헤테로고리화합물	17.8	23.6	11.2
902780	의료기기	기타 측정용검사용기기	13.6	37.2	11.1
902190	의료기기	인체 삽입되는 정형외과용 기기	19.1	17.7	9.8

對중국 품목별 수출 증가기여율
(단위 : 백만 달러, %)

HS	분류	품목명	수출	연평균 증가율	기여율
902780	의료기기	기타 측정용검사용기기	87.7	39.7	14.1
901812	의료기기	초음파 영상진단기	65.9	44.1	11.1
380891	의약외품	기타 소매용 살균제	48.7	95.6	10.7
380892	의약외품	기타 소매용 살균제	50.0	56.8	9.4
300210	원료	혈액분획물의 조제품	37.6	146.3	8.9
902129	의료기기	기타 정형외과용 기기	37.4	50.5	6.7
901890	의료기기	그 밖의 의료용 기기	39.2	38.6	6.2
340420	원료	인조 왁스	37.6	31.9	5.4
300490	완제	기타 완제 의약품	29.5	23.3	3.5

對아세안 품목별 수출 증가기여율
(단위 : 백만 달러, %)

HS	분류	품목명	수출	연평균 증가율	기여율
380892	의약외품	기타 소매용 살균제	68.0	340.7	31.0
902780	의료기기	기타 측정용검사용기기	31.1	40.5	9.2
300490	완제	기타 완제 의약품	148.1	3.2	6.1
961900	의약외품	위생 타월(패드), 탐폰	13.9	87.3	5.4
901812	의료기기	초음파 영상진단기	34.8	12.6	4.8
300210	원료	혈액분획물의 조제품	17.6	34.4	4.8
320500	원료	안료	21.8	23.2	4.7
901890	의료기기	그 밖의 의료용 기기	66.7	5.6	4.6
382200	의료기기	진단용·실험실용 시약	25.9	16.8	4.5

주 : HS 6단위 기준. 증가율은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연평균증가율, 증가기여율=(품목의 수출증감액/의료제품의 수출증감액)*100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3 주요국의 의료산업 분야 FTA 관세 인하 현황

- 의료시장은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고 FTA를 활용하여 신흥국 중심으로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필요
 - 우리나라 의료산업은 수출 비중이 크지 않아 현재 내수에 머물러 있지만, 수출 경쟁력 제고를 통해 수출 확대 기대
 - * (의약품) 생산 16.2조 원, 수출 2.3조 원(2013년 기준), (의료기기) 생산 4.6조 원, 수출 2.7조(2014년 기준)²⁾
 - 고령화 진행 및 1인당 의료비 지출규모로 볼 때 선진국의 의료 수요가 크지만 선진국 의료 시장은 이미 성숙한 단계로 우리 기업 진출에 어려움이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출 전략을 마련
 - 신흥국 의료시장은 경제 성장에 따른 의료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 반면 의료산업 기반이 취약하여 수입 의존도가 높음
 - 중국, 인도, 아세안 등 신흥시장은 EU,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FTA 활용 가능

2) “2014년 보건산업통계집”,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4.10. 발행., “2014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실적 통계자료”, 의료기기산업협회, 2014.6.17일자

주요 신흥국의 헬스케어 시장 현황

	인구(명)		65세 이상 비중(%)		의약품 시장(억 달러)		의료기기 시장(억 달러)	
	2014년		2010년	2050년	2014년	2018년 ^f	2014년	2018년 ^f
중국	13.9억	(1위)	8.4	23.9	987.5	1548.4	187.5	328.6
인도	12.7억	(2위)	5.1	12.7	167.4	255.5	37.3	64.8
인도네시아	2.5억	(4위)	5.0	15.8	58.5	77.0	7.0	12.2
베트남	0.9억	(14위)	6.5	23.1	38.1	64.3	7.6	13.9

주 : f는 BMI forecast
 자료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BMI, UN Population Division

(1) 중국

- 중국은 ①정부의 의료산업에 대한 지원 및 투자확대, ②소득 향상과 노령화 심화에 따른 개인 의료비 증가, ③의료기기 세대교체 등으로 對세계 수입이 빠르게 확대
- 중국은 치과 전문병원 신설 확대 및 구강 보전에 대한 관심 증대로 치과용품 수입이 두 자릿수 이상의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중 FTA 발효시 4~10%의 MFN 세율이 단계적으로 철폐
- 특히, 한·중 FTA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관세 철폐와 더불어 인·허가 상호 인증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중 수출 확대의 발판을 마련

중국의 주요 의료제품 FTA 관세 인하 품목

(단위 : %, 백만 달러)

	HS코드	품목명	대세계 수입액 (2014)	연평균 증가율	대한국 수입액 (2014)	한국 점유율	한국 순위	경쟁국 ¹⁾ (점유율)	MFN	APTA ²⁾	양허
완제 의약품	30029030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81.8	269.9	3.0	3.6	4	프랑스(41.3)	3.0		즉시
	30049090	기타 소매의약품	8,311.3	20.1	27.2	0.3	23	독일(22.5)	4.0	2.8	즉시
	30061000	살균한 외과용 깃거트 또는 봉합재	211.4	22.3	11.8	5.6	4	미국(59.3)	5.0		5년
원료 의약품	38089400	소독제	96.0	29.9	4.1	4.3	9	독일(18.2)	9.0		5년
	29339900	기타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	1,029.7	22.7	10.5	1.0	11	아일랜드(44.6)	6.5		5년
	29349990	기타 헤테로고리 화합물	335.2	26.1	4.0	1.2	10	미국(49.2)	6.5		5년
의약 외품	39139000	기타 천연중합체	103.1	23.9	2.1	2.0	5	미국(65.5)	6.5		5년
	30051090	반창고 외 접착성을 갖는 봉대	86.7	26.0	5.5	6.3	6	핀란드(19.8)	5.0		5년
	96190020	위생 타월(패드), 탐폰	26.4	55.6 ³⁾	3.0	11.5	3	일본(37.5)	10.0		10년
의료 기기	30064000	치과용 시멘트 또는 충전제	69.6	21.4	1.2	1.8	9	독일(37.4)	5.0		10년
	34070090	기타 치과용 조제품	9.9	33.3	4.4	44.1	1	일본(24.6)	10.0		10년
	90183900	카테터, 수혈세트와 수액세트 등	1,062.5	21.8	11.5	1.1	15	미국(37.4)	4.0		5년
	90184990	기타 치과용 기기(치과용 드릴 등 제외)	97.0	22.8	4.5	4.6	7	스위스(25.3)	4.0		5년
	90189030	내시경	493.9	20.2	2.2	0.5	6	일본(49.3)	4.0	3.5	즉시
	90189050	고주파기기	23.1	25.8	1.4	6.1	3	미국(70.0)	4.0	3.5	즉시
	90191090	기계요법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31.5	21.9	2.4	7.5	4	독일(20.2)	4.0		5년
	90211000	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용 기기	381.0	31.7	2.5	0.7	9	미국(42.7)	4.0		15년
	90212900	의치 외의 치과용품	132.3	37.8	33.5	25.3	1	스위스(22.3)	4.0		5년
	90213900	인조관절 외의 인조 인체	403.8	26.9	1.4	0.4	16	미국(61.6)	4.0		10년
	90221300	엑스선 기기(치과용으로 한정한다)	79.1	35.9	16.9	21.4	2	핀란드(34.5)	4.0		5년
	90251910	기타 온도계와 고온계	155.0	28.8	4.6	3.0	8	독일(22.5)	8.4	8	5년

주1 : 경쟁국은 해당 HS코드 품목의 수입시장 점유율 1위(한국 1위시 2위) 국가와 점유율을 표시
 주2 : 아시아-태평양양무역협정(APTA) 세율
 주3 : 최근 2년간 연평균 증가율로 대체(2012년 코드 신설 품목)
 자료 : 중국해관총서, 한·중 FTA 협정문, 트레이드내비(TradeNAVI)

(2) 인도

○ 인도는 완제의약품 및 일회용품은 국내 생산, 고급 의료장비는 수입에 의존

- 인도는 세계 최대 복제약 생산국으로, 원료의약품 수입 증가율이 높은 품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10% 관세가 철폐된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노력

* 인도는 개도국에서 사용되는 복제약 80% 이상, 전 세계 복제약의 20% 생산³⁾

- 인도는 내국 및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 서비스 개선 노력으로 영상진단기기, 심전도 측정기와 같은 고급 의료기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FTA 활용 필요

- 또한 치과용품(HS 90212900)의 수요 확대로 수입이 연평균 61.2%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부터 7.5% 관세에 대해 무세가 적용

인도의 주요 의료제품 FTA 관세 인하 품목

(단위 : %, 백만 달러)

	HS코드	품목명	대세계 수입액	연평균 증가율	대한국 수입액	한국 점유율	한국 순위	경쟁국 (점유율)	MFN	FTA
완제	30021019	기타 면역혈청	71.3	34.8	2.3	3.2	5	미국(51.4)	10	3.13
	30021020	헤모글로빈과 글로블린	11.8	34.0	7.9	66.6	1	스위스(20.0)	10	3.13
	30022012	간염 백신	9.8	21.8	0.2	1.6	4	프랑스(50.8)	10	3.13
	30029030	미생물 배양액(효모제외)	23.7	72.3	3.7	15.6	2	미국(38.9)	10	3.13
	30043110	인슐린주사	181.6	20.3	0.1	0.1	9	브라질(32.8)	10	3.13
	30043921	고나도 트로핀(성선자극호르몬)	14.1	43.7	1.3	9.1	3	중국(61.4)	10	3.13
	30049044	파클리탁셀과 도세탁셀	22.4	85.2	0.0	0.2	5	대만(39.6)	10	3.13
원료	29182190	기타 살리실산과 그 염	8.1	36.6	0.7	8.9	3	독일(42.1)	10	8.75
	29224910	아미노 아세트산(글리신)	8.3	27.5	0.5	6.4	2	중국(85.5)	10	0.00
	29242990	가터 환식아미드와 유도체	116.5	20.3	0.2	0.2	12	중국(79.9)	10	3.13
	29332990	기타 불지 않은 이미다졸고리 화합물	122.7	56.9	0.3	0.2	12	중국(90.5)	10	3.13
	29334900	기타 퀴놀린고리/이소퀴놀린고리구조 화합물	27.7	23.3	0.03	0.1	16	중국(67.0)	10	3.13
	29339900	기타 질소헤테로고리화합물	240.9	35.8	0.04	0.0	26	중국(69.5)	10	3.13
	29349900	기타 핵산과 이들의 염	361.8	30.6	0.04	0.0	26	중국(66.1)	10	3.13
	29371900	기타 호르몬	20.3	49.8	1.3	6.2	4	독일(38.0)	10	3.13
	29400000	당류(화학적 순수물, 당에테르, 당아세탈	33.4	32.1	1.2	3.7	7	네덜란드(88.1)	10	3.13
	29419019	기타 리팜피신의 염	35.8	22.0	0.5	1.4	5	중국(79.4)	10	0.00
	30019010	인간의 것(이식용 피부, 뼈 등)	6.8	731.1	0.0	0.3	2	중국(99.3)	10	3.13
	3404200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8.2	69.1	1.8	22.3	3	독일(38.6)	10	3.13
	35079069	기타효소	22.1	59.9	0.1	0.6	9	중국(43.0)	10	3.13
	39123922	메틸셀룰로스	36.1	58.2	4.3	11.8	3	미국(57.9)	10	3.13
	39123929	기타 에테르셀룰로스	37.8	21.8	4.8	12.6	2	독일(47.6)	10	3.13
	39139090	경화단백질, 천연고무, 텍스트란의 천연중합체	21.2	25.3	0.1	0.3	16	중국(58.3)	10	3.13
	의약외품	30051090	거즈,반창고 외의 기타 접착성 피복재	7.4	28.5	0.1	0.7	10	노르웨이(38.2)	7.5
의료 기기	84192010	자동 살균기	12.8	56.2	0.8	6.2	4	이탈리아(41.9)	7.5	3.13
	90181100	심전계	5.8	20.8	0.1	2.1	6	중국(72.5)	7.5	0.0
	90181210	초음파영상진단기	10.5	20.5	0.5	4.7	4	미국(60.8)	7.5	0.0
	90183290	주사침, 봉합침 이외의 기타바늘	18.2	22.4	1.0	5.6	6	중국(25.8)	7.5	0.0
	90183930	카테터 캐놀러	29.1	26.7	1.0	3.6	8	싱가포르(44.0)	7.5	0.0
	90191020	마사지 기구	41.5	51.1	35.2	84.9	1	중국(14.3)	7.5	0.0
	90212900	치과용품	31.6	61.2	2.5	7.9	4	미국(50.2)	7.5	0.0

주 : 경쟁국은 해당 HS코드 품목의 수입시장 점유율 1위(한국 1위시 2위) 국가와 점유율을 표시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인도무역통계, 한-인도 FTA 협정문, 트레이드내비(TradeNAVI)

3) The Economic Times, IBEF, makeinindia.com, (“인도, 2020년 세계 3대 제약시장으로 성장 전망”, 무역협회 뉴델리지부 해외시장정보 재인용)

(3) 아세안

-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은 취약한 기술력과 연구 개발 능력 부족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임
-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해 한-아세안 FTA 활용 노력과 더불어 의약품 인·허가 등록과 관련한 비관세장벽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
 - 인도네시아는 대부분의 의료제품에 대한 5%의 관세가 철폐되었고, 베트남 또한 5-20%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됨
 - 한-인도네시아 FTA 또는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협상시 한국산 의약품·의료기기의 인·허가 및 등록 절차 간소화를 위한 협상 전략 필요
- 또한, 아세안 국가는 낙후된 국내 의료산업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 기업과의 합작법인을 장려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현지 투자 진출을 통한 수출 기반 마련 가능

4 결론 및 시사점

- 의료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령화 및 신흥국의 소득 증가에 따라 미래 유망 산업으로 각광 받지만 아직 우리의 세계 시장 점유 수준은 미미
- 신흥국가는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의료 서비스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잠재력이 큰 시장인 만큼 신흥시장을 발판으로 의료 산업 수출을 본격화할 필요
 - 신흥시장에서 미국, EU 등 의료 선진국과는 가격 경쟁력으로, 현지 로컬 기업과는 품질 경쟁력을 중심으로 맞춤형 수출 전략 마련이 필요
 - * 중국, 인도, 아세안은 아직 미국, EU와 FTA가 체결되지 않은 만큼 FTA 혜택을 활용할 필요
- 의료산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수출시 각국의 지식재산권, 임상시험, 인·허가 관련 규제가 엄격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가격 비탄력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신약 기술, 임상시험, 인·허가 및 승인제도 등이 수출의 결정적인 요소
- 향후 정부 차원의 FTA 이행협의 또는 신규 및 추가 FTA 협상 과정에서 관세 철폐 외에도 임상시험, 인·허가제도 관련한 비관세장벽의 해소에 집중할 필요
 - 시험의 상호인증, 의약품/의료기기의 인·허가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①임상·승인 관련 비용 절감, ②허가·절차 간소화 효과 기대
 - * (에콰도르의 자동승인인정제도) 서면심사만을 통해 우리 의약품이 자동 허가를 받게 되며, 허가 절차는 최소 7일 정도로 단축(2014.3.)
 - * (페루, 위생선진국에 한국 등록 추진) 페루가 한국을 위생선진국으로 지정함에 따라 한국 식약처가 승인한 의약품의 인·허가 기간이 1~2년에서 45~90일로 크게 단축(2014.5.)

참고

인도네시아의 주요 의료제품 FTA 관세 인하 품목

(단위 : %, 백만 달러)

	HS코드	품목명	대세계 수입액	연평균 증가율	대한국 수입액	한국 점유율	한국 순위	경쟁국 (점유율)	MFN	FTA
완제	3002209010	간염 백신(Hepatitis Vaccine)	7.8	21.8	0.6	7.2	3	네덜란드(54.5)	5	0
	3004390000	기타 호르몬제제	20.4	20.3	0.1	0.4	19	독일(31.5)	5	0
	3004409090	모르핀제제	7.9	32.9	0.4	4.7	6	덴마크(26.4)	5	0
	3004904900	마취제(국소마취제는 제함)	6.1	41.2	0.9	14.1	2	아일랜드(52.5)	5	0
	3004905990	진통제	5.3	35.7 ²⁾	0.0	0.8	7	호주(32.9)	5	0
	3808949000	기타 소독약	7.9	51.4 ²⁾	0.1	1.0	10	싱가포르(57.2)	5	0
원료	2933299000	불지 아니한 이마다졸리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14.1	20.8	0.2	1.5	8	대만(32.9)	5	0
의약품	3307903000	향수 또는 화장품을 입힌 티슈나 종이	8.6	126.8	0.0	0.4	6	중국(72.8)	5	0
	3808911900	소매용 살충제의 원제	39.8	25.5 ²⁾	1.1	2.8	6	중국(46.9)	5	0
	3808919900	기타 소매용 살충제	91.4	24.1²⁾	14.2	15.5	3	중국(24.8)	5	0
	3808929000	기타 소매용 살균제(공기 분사형)	77.9	23.6²⁾	7.7	9.9	4	중국(19.7)	5	0
의료 기기	3822002000	진단용 시약(종이, 셀룰로오스 위당섭유로 한정)	5.6	47.8	0.1	2.0	7	중국(55.6)	5	0
	9018391000	카테터	20.1	44.1	0.1	0.3	16	싱가포르(21.8)	5	0
	9018903000	기타 전기식 의료용 기기	55.5	68.0	0.6	1.0	12	일본(38.3)	5	0
	9019109000	전기식이 아닌 기계요법용 또는 마사지용 기기	5.3	25.5	0.7	13.7	3	중국(34.1)	5	0
	9019200000	오존흡입기·산소흡입기·인공호흡기 등	29.9	30.8	0.8	2.6	11	독일(19.9)	5	0
	9027301000	분광광도계	13.8	25.7	0.6	4.2	8	미국(20.6)	5	0
	9027801000	측정용검사용 기기 - 팽창계	10.4	43.6	1.0	10.0	5	미국(20.3)	5	0
	9402901000	수술대	12.0	25.7	0.5	4.3	8	중국(38.8)	5	0

주 : 경쟁국은 해당 HS코드 품목의 수입시장 점유율 1위(한국 1위시 2위) 국가와 점유율을 표시
 자료 : GTA(Global Trade Atals), Statistics Indonesia, 트레이드내비(TradeNAVI)

베트남의 주요 의료제품 FTA 관세 인하 품목¹⁾

(단위 : %, 백만 달러)

	HS코드	품목명	대세계 수입액	연평균 증가율	대한국 수입액	한국 점유율	한국 순위	경쟁국 ²⁾ (점유율)	MFN	FTA
완제	300432	항생물질 포함한 소매 의약품	46.4	23.4	0.3	0.7	15	중국(25.2)		
	-10	텍사메타손을 포함한 호르몬							5	0
원료	293499	기타헤테로고리 화합물	45.4	31.5	0.2	0.4	9	중국(79.0)		
	-10	핵산, 이들의 염과 유도체							10	5
	-20	술톤, 딜티아젬							5	0
	-40	3-아지도-3-디옥시타이미딘							5	0
	-90	기타							5	0
의약품	330610	치약	12.5	41.5	0.9	7.1	5	싱가포르(21.9)		
	-10	교정용 페이스트와 가루							20	5
	-90	기타 치약							20	5
	330790	기타제품	12.8	25.6	0.9	7.2	3	싱가포르(50.5)		
	-10	동물 화장용 제품							20	0
	-30	가향한 종이와 화장품을 도포한 종이							20	0
	-40	탈모제							20	0
	-50	콘택트렌즈 또는 의안용 액							20	0
	-90	기타제품							20	10
	961900	위생 타월(패드)·담폰, 유아용냅킨	66.0 ³⁾	31.2	3.4	5.1	6	일본(32.4)		
	-11	흡수력 있는 섬유재료의 워딩으로 만든 것							5	0
	-19	기타의 것							15	0
	-91	기타 편물로 만든 것							20	0
-99	기타							20	0	
의료기기	900490	안경	28.0	75.5	0.2	0.8	4	중국(93.0)		
	-90	기타 교정용보호용을 제외한 안경							20	0

주1 : 베트남은 HS코드 최종단위의 수입 통계를 입수할 수 없는 관계로 HS코드 6단위로 분석
 주2 : 경쟁국은 해당 HS코드 품목의 수입시장 점유율 1위(한국 1위시 2위) 국가와 점유율을 표시
 주3 : 최근 2년간 연평균 증가율로 대체(2012년 코드 신설 품목)
 자료 : International Trade Centre(ITC) - Trade Map, 베트남 관세청(Vietnam Customs)

문의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박지은 수석연구원 (6000-5342, jieunpark@kita.net)